



2020년 12월 6일(제1011호)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를 낮추고 너(당신)를 높이는 삶”

“섬에서 19년간 착취당한 A 장애인, 장애인 수당 38만 원마저 빼앗기다.” 기사 제목만 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섬은 사회적 감시가 자유로운 곳,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 장애인 수당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위한 복지금입니다. A 장애인은 19년간 자신의 삶을 잊은 채 사회적 감시가 자유로운 섬에서 고용주로부터 온갖 욕설과 구타는 물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A 장애인은 고용주의 도구였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 시대의 자화상이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보다 나를 높이는 삶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든 인간은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모든 것을 놓아둔 채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짧은 이 세상살이에서 부를 앞세워 내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 사람을 인격의 존재가 아닌 도구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메마른 광야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 주일을 지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자신이 먼저 회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하며 내 뒤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촉구합니다. 바로 ‘나를 낮추고 너(당신)를 높이는 삶’을 선포하십니다. 뛰어난 자신의 능력과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온 수많은 사람을 뒤로한 채, 세례자 요한은 메마른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을 들어 높입니다. 이렇듯 가진 것이 많은 존재가 돋보이고 내 돈으로 내 권리를 사려는 어둠이 아닌, 너(당신)를 더 높이고, 너(당신)를 더 사랑하자고 선포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은 내 존재보다 너(당신)의 존재가 더 소중하니, 우리 함께 회개로써 어둠을 밝힐 빛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은 책에서만 읽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보다 너(당신)를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너(당신)를 들어 높이며 세상적 부에 지배받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 출발은 ‘너(당신)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병원(대미아노) 신부
백골(3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본'호송

이사 40,1-5.9-11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2베드 3,8-14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르 1,1-8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첫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마닐라에서, 1842년 2월 28일

존경하올 르그레즈와(Legregeois)¹⁾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조선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어 신부님께 짝막한 편지를 올립니다.

신부님께서서 우리와 헤어지신 지도 벌써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²⁾ 2월 16일쯤에³⁾ 리브와(Libois)⁴⁾ 대표 신부님께서서 매스트르(Maistre)⁵⁾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한 줄을 알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 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갑니다. 그 군함은 프랑스의 루이 필립(Louis Phillippe) 왕이 중국에 파견한 사절 장시니(D. Jancigny)⁶⁾를 마카오에 태워다 준 군함입니다. 마카오를 떠난 후, 우리는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 여기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 가지고 2월 말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부님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곳 모든 신부님들과 우리도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

신부님과 작별한 후로는 오늘까지 프랑스어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대표부 신부님들이 편지하실 것이므로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 토마스(최양업)는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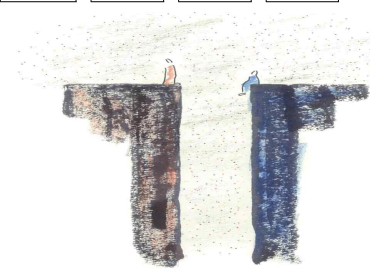
이 글을 마치면서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하며, 저도 신부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김해(金海)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 1) 르그레즈와(1801~1866) : 파리 외방전교회 회원. 김대건 신학생의 스승.
- 2) 르그레즈와 신부는 1841년 말에 마카오를 떠나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 3) 김대건 신학생은 1842년 2월 15일에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조선으로 가기 위해 에리곤 호에 탑승하여 마카오를 출발, 2월 28일에는 중간 기착지인 필리핀의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 4) 리브와(1805~1872) : 파리 외방전교회 회원. 김대건 신학생의 스승.
- 5) 매스트르(1808~1857) : 파리 외방전교회 회원.
- 6) 장시니 : 프랑스가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
- 7) 최양업 신학생은 1842년 7월 17일에 만주 선교사인 브뤼니에르 신부와 함께 프랑스 군함 파보리트호에 탑승하여 마카오를 출발하였다. 브뤼니에르 신부는 김 안드레아가 떠난 후 최 토마스를 맡아 가르쳤다.

『성 김대건 안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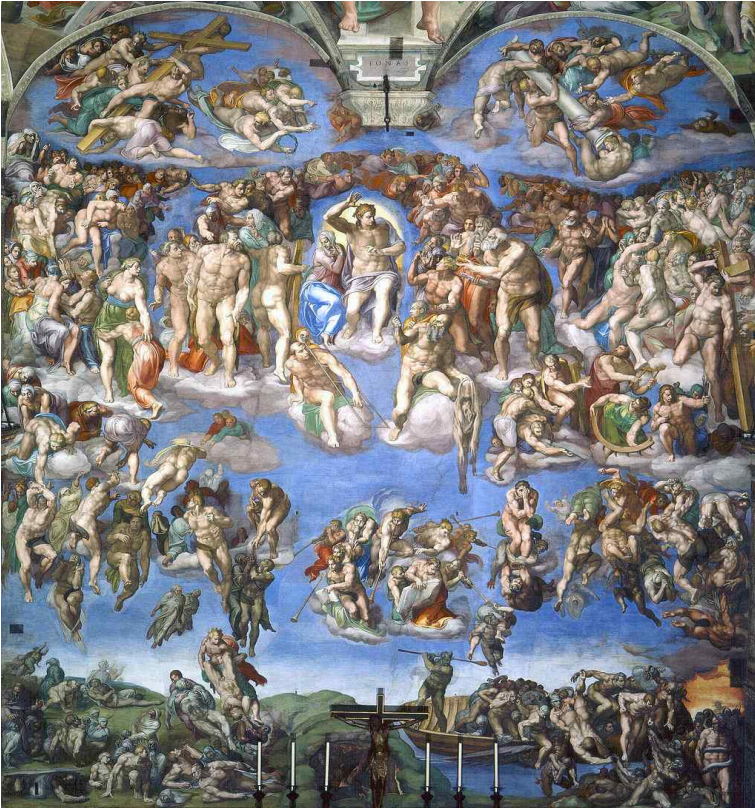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갈
이들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늘을 노래할
이들이지요.

님께서
이들에게
기대를 걸어
새로운 세상에 선물한
새로운 이들입니다.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이제 5주에 걸친 최후의 심판 그림 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처음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혼란과 공포, 두려움 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껍질에 그려 넣은 자신의 자화상과 연관시켜서 살펴볼 수 있겠다.

바르톨로메오 성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손에 들고 있는 자신의 껍질은 마치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듯 들고 있다. 성인은 자신의 껍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뜨릴 것인가? 미켈란젤로의 운명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떨어진다면, 그는 바로 지옥으로 가는 배에 떨어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말년이 다가오면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젊었을 때 추구했던 인간성에 대한 확신, 이상적인 미에 대한 회개가 들었는지 모른다. 즉 자신이 그려낸 아름다운 세계는 허구이자 껍질에 불과한 세계로, 실체가 없는 창작물인 것이다. 실체, 즉 껍질 속에 존재하는 영혼과 존재는 오직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켈란젤로는 젊었을 때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회개의 차원에서 이 껍질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듯이 보인다. 또한 이것은, 이 그림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 바티칸의 교황과 추기경들 및 이 그림을 보는 무수한 이들에게 제시하는 엄숙한 경고일 수도 있겠다.

김은혜(앨리스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2주일: 남상대 조안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12월 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임시상임위원 영상회의
 때·곳: 12월 9일(수) 15:00, 군중교구청 3층

◆ 대림 제2주일 특강 안내

강사: 현광섭 신부(자운대 성당)
 주제: 성체성사
 게시: 12월 4일(금) 17:00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